**다이라 계곡과 위패암 - 위패암, 잇쓰 폭포**

이 하이킹 코스는 왕복 1km미만으로 다이라 계곡의 밑바닥과 후지코토강의 강가로 이어져 있으며, 너도밤나무와 수령 200년의 삼나무 혼교림을 지나는 내리막길이다.

51만m²에 달하는 다이라 계곡은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의 핵심 지역의 밖에 있지만, 보호림과 공통되는 특징이 많이 있다. 이 협곡에는 약 100종의 수목이 있으며, 하이킹 코스를 따라서는 개다래(다래의 일종)와 곰딸기(라즈베리의 일종) 등의 과수가 서식하고 있다. 곰딸기는 일본에서 곰의 딸기라는 의미의 ‘구마이치고’라고 불리며, 이곳에 사는 반달가슴곰의 좋아하는 음식이다.

곰 외에는 일본원숭이, 일본 하늘다람쥐가 이 숲에 살고 있으며, 큰유리새와 뿔호반새도 나무 사이를 날아다고 있다.

많은 거암이 하이킹 코스를 따라 후지코토강 연안에 늘어서 있다. 짧은 거리의 샛길이 메인 코스에서 갈라져 나와 강을 따라 이어져 있다. 물가에서 북쪽으로 위패암이 보인다. 이 거대한 석판은 불교의 위패를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 붙여졌다. 메인 코스는 위패암을 조금 지난 곳까지 이어져 있으며, 폐선된 노선의 철교가 보이는 작고 탁 트인 곳이 종점이다. 한때는 이 지점보다 더 앞쪽까지 하이킹 코스가 이어져 있었지만, 2013년 산사태로 인해 나머지 길이 무너져 버렸다.

하이킹 코스에는 급경사로 미끄러운 곳이 있다. 걷기가 어려울 때는 인근 다이라 다리에서 다이라 계곡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.